

담수생물을 찾아서

다양한 담수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가야산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토끼 박쥐'

일상에서 '박쥐'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습성이 야행성이고 동굴이나 폐광 등 주로 어두운 세계에 사는 녀석들이라 쉽게 마주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11호에서는 이들 중 상당히 귀하신 몸으로 추대받고 있는 '토끼박쥐*Plecotus auritus*'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녀석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가야산' 내에 위치한 한 동굴이었습니다. 가야산은 행정구역상 경남 합천군 및 거창군, 경북 성주군에 걸쳐 위치하며, 주봉인 상왕봉(1,430m)을 중심으로 칠불봉(1,433m), 동성봉(1,227m), 남산제일봉(1,010m) 등 수많은 산악지형들로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산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3대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를 포함하여 훌륭한 명승 고적들을 품에 안고 있으며, 1972년에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토끼박쥐'는 분류학적으로 포유강 익수목 애기박쥐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영명이 'Brown Long-eared Bat', 이름 그대로 토끼처럼 크고 긴 귀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삼림성 박쥐로 나비나 나방과 같은 곤충을 주먹이로 하고, 대개 초여름에 1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박쥐류와는 달리 정지비행을 하면서 나뭇잎에 붙은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겨울에 주로 동굴에서 1개체부터 수개체의 작은 무리를 형성하여 동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큰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연중 동일한 장소를 은신처를 사용하지만 서식지를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종이라 정확한 개체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0여 개체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정선군, 태백시 및 경북 봉화군 등 주로 북부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가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희귀한 생물종입니다. 이에 국가적색 목록Red List에서는 '멸종우려Threatened'의 범주인 '취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야생생물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야산에서 이 녀석을 만나게 된 것은 너무 큰 행운이었고, 이는 토끼박쥐의 국내 서식지 범위가 한반도 중북부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지방까지 전국적인 서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종의 생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하기에 기초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충분한 연구조사와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녀석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1 토끼박쥐[정면]  
2 토끼박쥐[뒷면]



3 토끼박쥐[측면]  
4 동굴 내 동면중인 토끼박쥐



4 개체 Banding  
5 현장조사



글·사진 교육부 김성대